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부양자원과 부양스트레스 인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ess of Parent-in-law Caregiving

- Focusing on the Relation of Caregiving Resources and Caregiving Stress Perception -

성균관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 宋 賢 愛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Lecturer : Hyun Ae, Song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 李 貞 德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rof. : Chung Duck, Lee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인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며느리들을 중심으로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시부모 부양방안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67명의 며느리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회귀분석해 본 결과, 자기통제력·부모부양태도와 같은 개인적 요인, 부양의 호혜성·관계의 질과 같은 관계적 요인 및 비공식적 지원망의 성원들로부터의 지원과 같은 가족사회적 요인 등이 부양스트레스 인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인들이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부담 내지 스트레스를 느끼는 며느리들에게 주요한 부양자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며느리의 부양 부담 및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자원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 및 상담사업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I. 서 론

최근 외국에서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련된 각 분야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실제로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노년학 분야에서도 노부모 부양에서 야기되는 부담 및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지난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증가되어 왔다(Brody, 1985; Guse, 1992). 그러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재정적, 사회적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녀세대에게

과중한 노부모 부양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부담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문제를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세대의 부담 및 스트레스 양상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주어지지 않아 수 편의 연구논문에 불과할 뿐 아니라 (박경란, 1988; 최동희, 1991; 성미애, 1991; 김송애, 1991; 이영자, 1991; 최혜경, 1993; 한은주, 1993) 각각 다른 차원에서 부담 및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어, 자녀세대가 노부모 부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과연 어떠한 요인에서 기인하며 어떻게 하면 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가 있는 노인뿐 아니라 더 보편적인 건강한 상태에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부양자의 부양 부담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재가노인복지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 자녀세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시부모 부양 방안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부양 자원 : 개인적, 관계적, 가족사회적 자원

자원이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개개인의 내부 또는 외부 환경에 있는 힘으로(Pearlin & Schooler, 1978), 부양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나 태도가 노부모부양에서 야기되는 부담감을 적게 지각하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부양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노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역시 부양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부양자 주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부양 스트레스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고 보아 이러한 개인적·관계적·가족사회적 요인을 노부모를 부양하는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부양 자원으로 설정하였다.

1) 개인적 자원 : 자기 통제력, 부모부양태도

자기 통제력(self-efficacy)은 내외통제성(locus of control)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외적 통제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운이나 외부의 어떤 힘에 귀인하는데 비해(Cicirelli, 1980; Rotter, 1966) 내적 통제를 가진 사람은 사건의 결과를 자신의 행

동이나 환경을 지배하는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은 내적 통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적 통제자들은 사건의 결과에 대해 자기에로 귀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 도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현정, 1990). 즉, 자기 통제력이 충분할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덜 심각하게 여기며 이를 어떻게 조절하며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각 개인의 생활에 다른 영향을 주는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시부모-며느리간의 부양관계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 연구시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자녀들은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고(한국인구보건원, 1985)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는 것을 자식으로서 극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책임이 사회나 국가가 우선이 아닌 가족의 책임이라고 하는 가족부양지향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대다수의 노인들이 여전히 사적 부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양자들의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Horowitz, 1985). 일반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다른 친족을 돌보는 것과는 달리 규범적인 부양이고(Gerstel & Gallagher, 1993) 이러한 규범적인 부모부양태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호혜성을 평가하는 수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친밀감에 정적으로 관련되어 부모부양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담감을 상당량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부모 부양에 대한 연구시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라 할 수 있다.

2) 관계적 자원 : 부양의 호혜성, 관계의 질

기혼자녀세대의 경우 자신의 자아실현 추구는 물론 아내의 역할, 자녀양육문제 등 수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와중에 노부모 부양까지 담당함으로써 많은 부담감을 지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상을 얻거나 호혜성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만약 성인자녀가 노부모와의 교환에서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지각한다면, 노부모를 부정적으로 고정관념화하게 됨은 물론 노부모에 대해 부적 태도, 긴장, 갈등을 보일 것이다(Mammen & Sanders, 1992). 그러므로 부모세대의 일방적인 의존은 기혼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하여 앞으로의 부양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Cicirelli, 1983). 이와 같이 세대간의 호혜성은 부모-자녀간의 결속을 끊을수도 친밀감을 유지시킬 수도 있는 즉, 원만한 세대 관계유지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므로 세대간의 원조의 호혜적 유형과 비호혜적 유형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관계의 질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양 세대간의 관계에서 주요한 차원으로(Bengtson et al., 1990) 성인 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친밀감과 같은 관계의 질이 자녀의 부담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낮추는 경향이 있어 관계의 질이 노부모 부양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Barnett et al., 1991; Litvin, 1992; Umberson, 1992). 애정이나 친밀감과 같은 세대간의 관계의 질은 부양 스트레스를 매개하기도 하고(Cantor, 1983),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 계속여부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주요한 개념이므로(Litwak, 1985)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친밀과 같은 관계의 질은 노부모 부양 부담 및 스트레스를 파악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3) 가족사회적 자원 : 비공식적 지원망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

개인은 여러 문제상황에 직면할 때 가족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자에게 의존하며 이들로부터의 지원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느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Jackson, 1992). 오늘날 이러한 지원은 미래의 스트레스 연구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Dean & Lin, 1977), 부양자 부담에 대한 문헌들 역시 부양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주위 사람들의 지원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Stoller & Pugliesi,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형제자매·성인자녀·인척·친구와 같은 구체적인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비공식적 지원 전체 또는 하나의 범주로서의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서 질문되어와(Clipp & George, 1990), 여러 지원의 원천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며 따라서 그 결과들이 일관성있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친족/비친족의 지원의 유무나 얼마나 많은 도움이 제공되느냐와 같은 지원의 수준에

관한 것은 그 지원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불충분하므로, 그 보다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에게 누가 지원을 제공해 주느냐 즉, 지원의 원천에 대해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 지원의 효과는 특정 스트레스 상황이 부과하는 적응적 요구에 부합되는 유형의 지원을 받았을 때만 나타난다는 스트레스-지원 특정가설(stress-support specificity hypothesis)에 근거해, 지원의 유형을 정서적, 도구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유형이 노부모부양 스트레스 인지에 어떠한 식으로 관련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부양 스트레스 인지

부양 스트레스는 부양 부담과 유사한 개념으로 노년학 문헌에서 부양문제(Toseland, Rossiter & Labrecque, 1989), 부양역효과(Montgomery et al., 1985), 부양자 긴장(Mui, 1992), 부정적 감정(Cicirelli, 1983), 부모로 인해 겪는 희생(Sung, 1990), 주관적 곤란도(前田大作 冷水 豊, 1984), 부양비용(Walker et al., 1992) 등과 같은 의미로 언급되어 왔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들에게는 여러가지 비용(costs)이 있고 이는 다차원적이라 할 수 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영향과 함께 사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제약을 가져와 부양자에게 매우 스트레스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Mui, 1992). 걱정·긴장·속박감(Robinson, 1983), 안타까움·무력함(Cicirelli, 1983), 좌절·죄의식·짜증(Archbold, 1983) 등과 같은 정서적인 것이 있는 가하면, 노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는가하면, 재정적인 문제 또한 생길 수 있다(Walker et al., 1992). 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성인자녀는 노부모 부양으로 인해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없고, 생활상의 계획·기회상의 차질을 경험하고 사생활에 대한 제약(Archbold, 1983)이 일어날 수 있으며 노부모 부양에서 경험된 부담과 스트레스는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Lerner et al., 1991). 한편 중년기의 여성들은 흔히 직접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의무감과 미래에 대한 자신의 계획 사이에 갈등을 겪으며, 여기에 노부모를 수발해야 한다는 실제적인 부담이 부가될 때 이러한

상충하는 요구들의 스트레스가 정신적, 신체적 역기능의 증후로 나타나(Kiecolt-Glaser et al., 1987) 노부모부양은 부양자의 건강에 부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며느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소득수준, 취업여부, 동거여부, 며느리 순위)에 따라 부양 스트레스 인지는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부양 자원(개인적·관계적·가족사회적 자원)은 부양 스트레스 인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 며느리의 개인적 자원(자기 통제력, 부모부양태도)이 많을수록 부양 스트레스 인지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며느리의 관계적 자원(부양의 호혜성, 관계의 질)이 많을수록 부양 스트레스 인지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며느리의 가족사회적 자원(비공식적 지원)이 많을수록 부양 스트레스 인지는 낮아질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측정도구의 구성과 내용

자기 통제력 척도 : 며느리의 자기 통제력 척도는 Pearlin et al.(1979, 1981)이 고안한 척도를 바탕으로 '나는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의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감을 측정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형으로서 cronbach's α 는 .62로 나타났다.

부모부양태도 척도 : 며느리의 부모부양태도는 東條光雅(1983), Hamon & Bliessner(1990)의 연구와 본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을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결혼후 관계유지에 대한 태도」 4개 문항, 「노부모부양 책임소재에 대한 태도」 4개 문항, 「직계가족에 의한 노부모 부양태도」 3개 문항 등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형으로 cronbach's α 는 .70으로 나타났다.

부양의 호혜성 척도 : 며느리가 시부모와 주고 받는 원조의 양상을 진단하는 부양의 호혜성 척도는 Stevens(1992)와 Kulis(199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적 측면에서 주는 도움 3개 문항, 받는 도움 3개 문항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형으로 cronbach's α 는 .57로 나타났다.

관계의 질 척도 : 며느리가 시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Umberson(1992)의 연구를 토대로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형으로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지원 척도 : 비공식적 지원은 Cohen과 Hoberman(1983)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지원의 원천별로 배우자와 시가 형제자매, 친정 부모 형제자매 및 친구 이웃으로 구분하고 지원의 유형별로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거리를 남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에게 얼마나 표현하고 위로받는지를 묻는 정서적 지원, 시부모 부양에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얼마나 받는지를 묻는 도구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18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형으로 cronbach's α 는 .78로 나타났다.

부양 스트레스 인지 척도 : 부양 스트레스 인지 척도는 山根律子·池 弘子(1992), Barnes(1992), Walker et al.(1992), 성 미애(1991), 이영자(1991), 김송애(1991)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노부모 부양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 24개 문항을 선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생활 제약의 부담」, 「정신적·육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죄책감」 등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 형으로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과정

조사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적어도 시부모가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며느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 1, 2차 예비조사를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설문지를 수정하여 1993년 7월 12일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		N(%)	사회 인구학적 변인		N(%)
연 령	20대	182(23.7)	며느리 순 위	외며느리	111(14.5)
	30대	342(44.6)		만며느리	281(36.6)
	40대	190(24.8)		둘째며느리 이하	737(48.8)
	50대 이상	53(7.0)	동 거 여 부	한집에서 동거	245(31.9)
취업여부	무 유	468(61.0)		걸어서 30분 이내	53(7.6)
	유	297(39.7)		같은 서울 및 경기도	213(28.1)
소 득 수 준	99만원 이하	159(20.7)		경기도와 다른 곳	252(33.2)
	100-149만원	254(33.1)	계	767(100.0)	
	150-199만원	169(22.0)			
	200만원 이상	179(23.3)			

에서 8월 1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00부를 배부, 그 중 854부(85.4%)가 회수되었으나, 기재내용이 부실한 70부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17부 등 87부를 제외한 767부(76.7%)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인 며느리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V. 결과 및 해석

1. 며느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양 스트레스 인지

우리나라 며느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지각하는 부양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 그리고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며느리의 전반적인 부양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연령이 많고($p < .01$), 전업주부이면서($p < .001$), 시부모와 동거하고($p < .001$), 외며느리이거나 만며느리일 경우($p < .001$)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며느리들은 젊은 연령의 여성들보다 40대 이후의 중년여성들이 시부모 부양에 대해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부모의 연령이 20대 여성의 시부모의 연령보다 많아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시부모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성들은 스스로 신체적인 노화의 과정에 접어들면서 심적 갈등을 경험하는 와중에 시부모와 자녀의 중간에서 두 세대 모두에게 정서적·물질적 자원의 주된 제공자로서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협공받는 세대(sandwich generation)”의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젊은 연령의 며느리들보다 부담을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여성들의 경우는 여건상 시부모님께 많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죄책감은 전업주부들보다 높으나, 시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제약의 부담이나 정신적·육체적 부담감은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며느리나 만며느리이면서 시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들은 별거하는 여성들보다 단연 사생활 제약의 부담이 앞서고 정신적·육체적,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차원의 부양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경험하고 있어, 시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것이 부양자가 겪는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아무리 외아들이나 장남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 간다고는 하나 아직도 외아들·장남의 부모부양이 지차남의 부양보다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외며느리의 경우에는 시부모 부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가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부담감은 더욱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외, 만며느리는 둘째 며느리 이하보다 부모부양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죄책감의 측면에서의 부담은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부양 스트레스 인지도에서는 유의미한

표 2.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양 스트레스 인지

사회 인구학적 특징	부양 스트레스 인지		사생활 제약의 부담		정신적·육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취재감		부양 스트레스인지 전체	
	M	F, t	M	D	M	F, t	M	D	M	F, t	M	F, t
연령	20대	1.96	2.10	A	1.82	1.71	2.54	A	2.10	3.87**	2.15*	3.87**
	30대	1.96	2.21	A	5.11**	1.89	2.56	AB	2.15*	1.25	2.26	2.26
	40대	2.05	2.34	B		1.98	2.62	B	2.20		2.20	2.20
소득 수준	50대 이상	2.17	2.36	B		1.88	2.43	AB	2.18		2.18	0.23
	99만원 이하	2.20	2.18			2.01	2.53	A	2.18		2.18	0.23
	100-149만원	2.01	2.22			1.93	2.58	AB	2.17		2.17	
	150-199만원	1.97	2.21			1.85	2.59	AB	2.14		2.14	
취업 여부	200만원 이상	1.99	2.28			1.79	2.53	B	2.20		2.20	2.38*
	무	2.06	2.29			1.91	2.62		-2.15*		2.12	
동거 여부	유	1.19	2.13			1.87	2.30		2.32		2.32	6.11***
	동거	2.48	2.49			2.00	2.69		-7.84***		2.09	2.23
며느리 위치	별거	1.78	2.10			1.84	2.47		1.35		2.23	6.86**
	와	2.31	2.32	A		2.01	2.56	A			2.23	2.11
	만	2.19	13.44***	A		1.96	2.59	A			2.23	2.11
블체	1.87	2.12	B		1.81		B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소득수준이 부양 스트레스 인지의 하위요인인 구체적인 경제적 부담감의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소득이 낮은 경우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보다 시부모부양에 대해 경제적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리라 본다.

2. 부양 자원과 부양 스트레스 인지와의 관계

며느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관계적, 가족 사회적 자원이 많을수록 부양 스트레스 인지가 낮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자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부양 스트레스 인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설정한 후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개인적 자원과 부양 스트레스 인지 간의 관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며느리의 자기 통제력과 부모부양 태도가 높을수록 부양스트레스가 적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 통제력이 높은 여성들은 시부모의 의존 상태나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느껴지는 어려움을 스스로 통제 조절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자기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아 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부양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적어지는 것으로 보아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제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부모부양 태도를 가지고 있을때 즉, 결혼을 해서도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친밀한 접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사회나 국가보다는 가족에게 우선적인 책임감이 있으며 되도록이면 자손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부양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2) 관계적 자원과 부양 스트레스 인지 간의 관계

부양의 호혜성은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더 경제적·정서적·서비스적인 부양을 하는 경우(며느리 원조형)와 똑같이 주고받는 경우(상호원조형) 및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더 여러 측면의 부양을 하는 경우(시부모 원조형)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을 하고 Duncan'

표 3. 개인적 자원과 부양 스트레스 인지의 회귀분석

개인적 자원	부양 스트레스 인지		
	b	β	Partial R ²
자기 통제력	-1.947***	-.288	.093
부모 부양태도	-.417***	-.188	.035
상 수		88.329	
F		48.051***	

***P<.001

표 4. 관계적 자원과 부양 스트레스 인지의 회귀분석

개인적 자원	부양 스트레스 인지		
	b	β	Partial R ²
관계의 질	-1.401***	-.356	.163
부양의 호혜성	-6.350*	-.247	.059
상 수		72.044	
F		92.667***	

*P<.05 ***P<.001

s multiple range test를 해본 결과, 상호원조형과 시부모원조형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이 두 유형이 며느리원조형과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원조형과 시부모원조형을 하나의 변인으로 묶고 이를 가변수화하여 회귀분석에 포함시켜 분석해 보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부모와 호혜적으로 원조가 이루어지거나 더 원조를 받고 시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할수록 부양스트레스가 적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며느리가 시부모와 주고 받는 원조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시부모로부터 더 원조를 받는 경우는 시부모에게 더 원조를 해주는 경우보다 부양 스트레스인지 정도가 낮게 나타나, 기혼여성들은 노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상을 얻거나 호혜성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만약 기혼여성이 노부모와의 교환에서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하고 있다고 지각한다면 노부모를 부정적으로 고정관념화하게 됨은 물론 노부모에 대해 부적태도, 긴장, 갈등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Mammen & Sanders(199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Social Exchange Theory가 본 연구의 며느리-시부모 부양관계에서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양의 호혜성보다 시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부양 스트레스인지는 더 낮아져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부양자가 지각하는 부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Strawbridge와 Wallhagen(1991)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시부모와의 사이에서 애정이나 친밀감과 같은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며느리들은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스트레스를 적게 느낌을 알 수 있다.

3) 가족사회적 자원과 부양 스트레스 인지 간의 관계

주부양자인 며느리의 주위에 있는 남편을 비롯한 비공식적 지원망의 성원들의 지원이 높을수록 부양 스트레스 인지가 낮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비공식적 지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부양 스트레스 인지를 종속변수로 해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며느리에게 주어지는 비공식적 지원은 전반적으로 부양 스트레스 인지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스트레스-지원 특정가설(stress-support specificity hypothesis)에 근거해 이러한 지원을 지원의 원천별 유형별로 구체화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양 스트레스 연구시 가족이나 주위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원조를 받느냐하는 전반적인 지원의 정도보다는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누구의 어떠한 지원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과 시가 형제자매의

표 5. 원천·유형별 지원과 부양 스트레스 인지의 회귀분석

남편의 지원	부양 스트레스 인지		시가 형제자매의 지원	부양 스트레스 인지	
	b	β		b	β
남편의 정서적 지원	.541	.056	시가형제자매의 정서적 지원	-.038	-.004
남편의 도구적 지원	-1.060**	-.157	시가형제자매의 도구적 지원	-1.418***	-.224
상 수	57.097		상 수	32.754	
R ²	.017		R ²	.051	
F	5.200**		F	16.692***	
친정식구의 지원	부양 스트레스 인지		친구·이웃의 지원	부양 스트레스 인지	
	b	β		b	β
친정식구의 정서적 지원	.457	.054	친구·이웃의 정서적 지원	1.304**	.145
친정식구의 도구적 지원	.324	.037	친구·이웃의 도구적 지원	.038	.004
상 수	47.333		상 수	44.527	
R ²	.007		R ²	.022	
F	2.138		F	6.984***	

*P<.05 **P<.01 ***P<.001

도구적 지원과 친구·이웃의 정서적 지원이 부양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며느리들은 시부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남편이나 시가 형제자매에게는 시부모 부양에 대해 역할분담이나 경제적 지원 등 도구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주어질 때 부양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반면 사고, 개인적인 문제상담과 같은 정서적인 관계에 있는 친구·이웃의 지원은 이미 부양스트레스가 지각되었을때 시부모와 관련된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의논상대로 여기서 시부모와의 사이에서 생긴 좋지 못한 감정이나 고민거리들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양 스트레스 인지를 낮추지는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부양 스트레스 인지와 친구·이웃의 정서적 지원이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지원을 며느리들의 심리적 안녕이나 우울 등 적응상의 문제로 연장시켜 보았을 때는 유용한 대처방안이 되리라 여겨진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부양자원과 부양스트레스 인지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감안해 볼 때, 며느리의 부양 부담 및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자원에 초점을 둔 지역 사회 단위의 교육 및 상담사업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이를 스스로 통제·조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고, 생리적·심리적·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부모부양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부모 부양에 임해 질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부양 스트레스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심리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기적, 이해타산적인 인간관이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아 온 사회교환이론이 본 연구의 며느리와 시부모와의 부양관계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어, 오늘날 시부모가 가진 교환자원의 가치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저하되어 의존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부양자들은 긴장과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인 노인정을 비롯해서 노인대학, 노인복지단체 등에서 노인들의 자원을 꾸준히 개발 시킬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인정에 대해 바라는 서비스와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취업알선, 공동작업 등 일자리 안내와 건강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보급하여 노인의 경제·건강 측면에서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대학을 비롯 기타

노인복지단체에서 노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과 가치관을 습득케하여 부양자와의 사이에서 살림하는 방식이나 습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적당한 가사 및 손자녀 양육에의 참여 등으로 부양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며느리의 남편이나 시가형제자매 등 주위사람들의 도구적 지원이 제 차원의 부양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양자에게 가장 가까운 지원자가 될 수 있는 남편들이 부모부양의 일을 여성의 일로 규정짓고 성역할 구분을 강조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시가형제자매들 역시 노부모 부양을 어느 한 가족, 한 개인의 책임으로 규정짓는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부양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양관계가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형제자매가 부모부양을 분담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모임을 주도하는 사회사업적 개입 또한 병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이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모색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좀더 편안한 상태에서 부양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가족관계상 우리나라와 다소 유사한 배경을 가진 일본이나 중국 등 동양권의 선행연구보다는 주로 서구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를 삼았다는 점, 그리고 시부와 시모에 대해서 지각하는 부양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양자뿐 아니라 부양을 받고 있는 시부모의 입장에서도 부양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부양자와 피부양자 양 측면에서의 부양 스트레스를 진단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다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의 부

족으로 스트레스 모델 중 우선적으로 부양 스트레스 인지(C)를 중심으로 부양 자원(B)에 초점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를 좀더 확대하여 ABCX 모두를 고려한 완전한 스트레스 모델의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Barnes, C.L., et al.(1992). Caregivers of elderly relatives : Spouses and adult children. *Health & Social Work* 17(4), 282-289.
- 2) Cicirelli, V.G.(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815-825.
- 3) Cohen, S. & Hoberman, H.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4) Hamon, R.R. & Blieszner, R.(1990).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mong adult child-older parent pairs. *Journal of Gerontology* 45(3), 110-112.
- 5) Kulis, S.S.(1992). Social class and the locus of reciprocity in relationships with adult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3(4), 482-505.
- 6) Pearlin, L.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7) Stevens, E.S.(1992). Reciprocity in social support : An advantage for the aging family. *Families in Society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533-541.
- 8) Strawbridge, W.J. & Wallhagen, M.I.(1991). Impact of family conflict on adult 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1(6), 770-777.
- 9) Umberson, D.(1992).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both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 664-674.
- 10) Walker, A.J. & Pratt, C.C. & Oppy, N.C.(1992). Perceived reciprocity in family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1(1), 82-85.
- 11) 東條光雅(1983). 三世代の女性における老親扶養に對する態度. *社會老年學* 18, 29-36.
- 12) 山根律子 · 池弘子(1992). 老親の介護に關する若年女性の意識 - 介護を擔うことに對する態度の決定要因 -. *社會老年學* 35, 57-65.